

#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

이명인\*, 김윤이\*\*, 서영미\*\*\*, 이명하\*\*\*\*, 정석희\*\*\*\*\*  
군장대학 조교수\*, 예수병원 QI실\*\*, 원광보건대 겸임교수\*\*\*,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조교수\*\*\*\*\*

## Utilization and Awarenes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n Rural Hypertension or Diabetes Patients

Myung In Lee\*, Yoon Lee Kim\*\*, Young Mi Seo\*\*\*,  
Myung Ha Lee\*\*\*\*, Seok Hee Jeo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unjang University College, Gunsan-Si, Republic of Korea\*  
Team Manager, Office of Quality, Jesus Hospital, Jeonju-si, Republic of Korea\*\*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University, Iksan-Si, Republic of Korea\*\*\*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si, Republic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si, Republic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보건소 건강교실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CAM)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은 보건소 건강교실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환자 177명을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56.5%가 CAM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6.0%에 불과하였다. CAM에 대한 일반적 인식점수는 3.11±0.58점으로 CAM 재이용의도 및 권유의도 및 관련교육 참여의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604$ ,  $r=.516$ ,  $r=.419$ ,  $p<.001$ ).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의 CAM이용 현황 및 인식에 대하여 의료인들 및 보건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만성질환자들의 올바른 CAM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실행전략 및 정책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인식, 고혈압, 당뇨병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n hypertension or diabetes patients to participate in health class in rural community health center. A total of 177 hypertension or diabetes pati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face-to face interviews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About 56.5% of subjects experienced CAM and 16.0% of subjects told health care providers about CAM. General awareness of CAM was 3.11±0.58 in 5 point, and awarenes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ntion to reuse CAM, recommend CAM, and participate in CAM-related education ( $r=.604$ ,  $r=.516$ ,  $r=.419$ ,  $p<.001$ ). Health care providers such as doctors and nurses need to be concerned about CAM utilization and awareness in chronic disease patients. These findings can be used in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for health care providers and health policy makers to provide right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CAM for chronic disease patients and the public.

**Key Words**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tilization, Awarenes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11 November 2013, Revised 10 December 2013

Accepted 20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Seok Hee Jeong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awesomeprof@jb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있어 만성질환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의 양상과 사망원인이 크게 변하여 이전에 많았던 영양실조, 전염병, 기생충병과 같은 감염성질환에 의한 이환율이나 사망률은 급속히 감소된 반면, 고혈압, 당뇨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1]. 또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5기 1차년도 결과에서 보면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은 28.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당뇨병의 유병률은 10.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70세 이후에서는 4명당 1명이 당뇨병질환 유병자로 보고되었다[2].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므로 이들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3]. 그런데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고혈압 치료율은 75.7%, 조절률은 54.2%이고, 당뇨 치료율은 62.3%, 조절률(당화혈색소 6.5% 미만인 자)은 33.7%로 보고되고 있다[4]. 이러한 만성질환은 급성질환과는 달리 서서히 발병되고 점진적으로 그 증상이 심해지면서 악화되며,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일생을 통해서 계속 조절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국내를 비롯한 외국의 학회에서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하고 있으나 의료과학 분야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약물의 부작용, 치료의 한계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5].

현대의학으로 질환의 증상 조절은 가능하나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만성질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관리를 위해 현대의학이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전통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질환의 완치를 위해 서양의학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보완대체요법을 고려하고 있다[6][7]. 특히 양·한방 이원체제와 민간요법의 성행이라는 우리나라의 의료환경 체계 내에서 일부 만성질환자들은 질병완치의 불확실성, 질병회복의 기대와 관련하여

질환의 병원치료와 함께 보완대체요법을 병행하고 있으며[8][9], 환자들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강을 유지·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다[6].

그런데 여러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이 검증 없이 난무해있어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로 하여금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진료나 이중 진료로 재정적 손실이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10]는 보고가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이 일시적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에 적절한 치료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22][24]가 보고되면서 당뇨병[13][14], 고혈압[7], 관절염[12], 뇌졸중[19][20][21], 만성간질환[15], 암[16][17][18]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완대체요법의 원리규명과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져 오고 있다.

현재, 보완대체요법은 의학계의 반대, 과학성 결여 및 엄격한 연구수행의 부족,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점 등과 관련하여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환경 안에서 만성질환자들 및 일반대중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히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의 치료 및 간호제공을 위하여 이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현황 및 인식에 대한 지속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8][9]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경험자수, 사용 종류, 사용 이유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상대적으로 병원환경에 비하여 병원치료 이외의 다양한 요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거주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개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여 대상자들의 질환관리 및 관련 상담,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도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있는 일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 교실 및 당뇨병 교실에 참석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듣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전체 고혈압·당뇨병 환자이며 근접모집단은 전라북도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혈압·당뇨병을 병의원에서 진단받은 후 6개월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자, 글을 읽고 설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제외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 고혈압·당뇨병질환을 제외하고 다른 질환으로 수술이나 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설문지를 읽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설문지 작성 등 연구에의 참여가 불성실한 자,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194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총 177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조사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 이용해 본 보완대체요법 종류, 의료인과의 상의 경험, 의료인의 반응, 의료인과 상의하지 않은 이유, 의료인 이외의 상의

대상자, 재이용의도, 타인 권유의도, 관련교육에의 참여의도 등이 조사되었다. 이용해 본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는 서순복[23]에서 제시하는 총 2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이용해본 보완대체요법을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2.2 보완대체요법 인식 측정도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병원치료에의 적용 요구도 등이 조사되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서순복[23]이 양·한방 협진병원 입원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총 15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 5점까지의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98이다. 병원 치료에의 적용 요구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 5점까지의 한 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 치료에의 적용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2.3 대상자의 특성 조사지

대상자 특성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평균수입을 조사하였으며,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각각에 대하여 진단명, 첫 진단 시기, 약물복용 여부, 첫 약물복용 시기, 진단받은 질환(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한 정기검진 여부를 조사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JBNU 2012-12)을 받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로, 대상 보건소를 방문하여 협조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자 중 본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시 훈련된 조사원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3.1.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77명이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9명(33.7%), 여자 116명(66.3%)으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71세 이상이 118명(67%)였다. 학력은 무학 92명(52.3%), 초졸 46명(26.1%), 중졸 이상이 38명(21.6%)순으로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직업은 농업이 94명(53.1%), 무직이 57명(32.2%)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입은 100만원미만이 117명(66.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ies		(N=177*)	
		n	%
Gender	Male	59	33.7
	Female	116	66.3
Age	<60	20	11.4
	60-69	38	21.6
	≥70	118	67.0
Education	None	92	52.3
	Elementary	46	26.1
	≥ Middle school	38	21.6
Job	Farmer	94	53.1
	None	57	32.2
	Self-employed	8	4.8
	housewife	9	5.1
	Etc	8	4.8
Monthly family income (10,000won)	≤ 99	117	66.5
	100-299	53	30.1
	≥300	6	3.4

\*No response excluded

##### 3.1.2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고혈압 134명(77%), 당뇨병 20명(11.5%), 둘 다 있는 군은 20명(11.5%)이었다. 최근 6개월 이내 고혈압·당뇨병 진단 외에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한 경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3명(1.7%)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혈압·당뇨병 질병이환기간을 보면 5년 미만 61명(37.2%), 5~10년 미만 56명(34.1%), 10~15년 미만 25명(15.2%), 15년 이상은 22명(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 경우가 162명(98.8%)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2명(1.2%)이었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ies		(N=177*)	
		n	(%)
Disease	HTN	134	(77.0)
	DM	20	(11.5)
	HTN&DM	20	(11.5)
Duration of illness	<5	61	(37.2)
	5-9	56	(34.1)
	10-14	25	(15.2)
	≥15	22	(13.5)
Regular check ups	Yes	162	(98.8)
	No	2	(1.2)

HTN=Hypertension; DM=Diabetes Mellitus

\*No response excluded

#### 3.2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 3.2.1 보완대체요법 이용 경험 및 종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56.5%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는 다양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황(81.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뜸(72.9%), 찜질요법(49.0%), 지압 및 마사지 요법(4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Utilization of CAM

Categories		(N=177*)	
		n	(%)
Experience of CAM†	Yes	96	(56.5)
	No	81	(47.6)
CAM Methods (n=96)†	Cupping treatment	78	(81.4)
	Moxa cautery	70	(72.9)
	Hot pack	47	(49.0)
	Massage therapy	46	(48.0)
	Exercise therapy	45	(46.9)
	Hand acupuncture	43	(44.8)
	Supplementary health foods	43	(44.8)
	Hydrotherapy	31	(32.3)
	Natural vegetation	27	(28.1)
	Charcoal therapy	25	(26.0)
	Yoga	23	(24.0)
	Enzyme therapy	22	(22.9)
	Fasting therapy	22	(22.9)
	Aroma therapy	19	(19.8)
	Coffee enema	19	(19.8)
	Magnetic therapy	18	(18.8)
	Taping therapy	18	(18.8)
	Exorcism	17	(17.7)
	Hypogastric breathing	17	(17.7)
	Art therapy	17	(17.7)
Chi therapy	17	(17.7)	
Jewelry healing	13	(13.5)	
Others	13	(13.5)	
Meditation	8	(8.3)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o response excluded † Multiple choice

### 3.2.2 보완대체요법 이용관련 의료인과의 상의경험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에 관하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8명(16.0%)이었으며, 나머지 84.0%는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의료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에 무관심하였다(39.3%)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인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는 35.7%로 나타났다.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보완대체요법이 병원치료와 별개여서 상의하지 않았다'(41.6%)고 하였으며, 의료인이 아닌 다른 논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다'(62.6%)로 가장 많았다(Table 4).

### 3.2.3 재이용의도, 타인권유 및 관련교육 참여의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이용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은 모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재이용의도, 타인권유 의도 및 보완대체요법 관련 교육에의 참여 의도가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완대체요법 이용 경험에 따른 재이용 의도, 타인권유 의도 및 관련교

(Table 4) Health care provider's attitudes according to client's CAM utilization (N=177\*)

Categories		n	%
Consult experience with HCP	Yes	28	16.0
	No	149	84.0
Response of HCP (n=28)	Recommend no utilization	10	35.7
	Indifference to utilization	11	39.3
	Advice to utilization decision	2	7.1
	Listen and recommend utilization positively	5	17.9
Reason of no consult with HCP (n=149)*	Afraid to dislike other CAM	28	22.4
	Different with hospital treatment	52	41.6
	Ill prepared attitude of health care providers	8	6.4
	No question from health care providers	34	27.2
	Others	3	2.4
Consultant with non-HCP (n=149)	Family	20	13.4
	Neighbor	26	17.4
	Product salesperson	2	1.3
	No discussion with others	92	61.7
	Others	9	6.0

HCP=Health care provider; \*No response excluded

육에의 참여 의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Table 5).

## 3.3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

### 3.3.1 일반적 인식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3.11\pm 0.58$ 점으로 나타났다. 총 15문항 중 인식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보완대체요법은 엉터리 치료법이다'가 역환산시  $3.60\pm 0.78$ 점으로 나타나 보완대체요법이 엉터리 치료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인식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보완대체요법은 의료전문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 $2.85\pm 1.07$ 점)'로 나타났다(Table 6).

### 3.3.2 병원치료 적용 요구도

보완대체요법의 병원치료 적용 요구도는 보완대체요법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 $3.07\pm 0.91$ )가 이용 경험이 없는 대상자( $2.58\pm 0.91$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508, p=.001$ )(Table 5).

(Table 5) Intention and needs of CAM

(N=177\*)

	M±SD		t	p
	Experienced CAM (n=96)	Non-experienced CAM (n=74)		
Intention to reuse CAM	2.65±0.98	2.67±0.97	-1.226	.222
Intend to recommend CAM to others	2.59±0.94	2.40±0.97	0.125	.901
Intention to attend related education	2.47±1.04	2.47±1.01	-0.009	.993
Needs of applications on hospital therapy	3.07±0.91	2.58±0.91	-3.508	.001

\*No response excluded

## 3.4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와의 관계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은 재이용의도, 타인권유의도 및 관련교육에의 참여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Table 7).

〈Table 6〉 General awareness of CAM

(N=177)

Variables	M±SD
1. CAM has a therapeutic valu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medicine.	2.85±0.97
2. CAM is a quackery therapy.*	3.60±0.78
3. CAM can be complementary for conventional medicine.	3.02±0.96
4. CAM has a helping ideas and methods for conventional medicine.	2.97±0.95
5. CAM promotes the natural healing power of human body.	2.99±0.98
6. CAM is interested in the elimination of symptoms and improvement of wellbeing.	2.95±0.98
7. CAM has a poor scientific evidence in principles and application.*	3.38±0.89
8. The effect of CAM is related with placebo effect.*	3.46±0.88
9. CAM has a certain effect which is difficult to explain.	3.02±0.93
10. CAM is provided by medical professionals.	2.85±1.07
11. The trial of CAM is not bad.	3.18±1.01
12. CAM become interested by patients as well as public people.	3.01±1.02
13. CAM is widely used for health promotion by public people.	3.04±0.86
14. The application of CAM is desirable to maximize the therapeutic effects in the future.	3.01±0.85
15. I will recommend the use of CAM to other people in the future.	2.89±0.92
Total	3.11±0.58

\*Be calculated in terms of the inverse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and future intention about CAM

(N=177)

	Awareness of CAM (r)
Intention to reuse CAM	.604*
Intend to recommend CAM	.516*
Intention to attend related education	.419*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고혈압·당뇨병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6.5%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해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6.0%, 상의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84.0%였다. 이는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경험을 조사한 박애주 등의 연구[24]에서 고혈압 환자는 35.0%, 당뇨병 환자는 44.6%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6][17][18]에는 71.4%에서 보완대체요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사용은 중증도가 높은 암환자들 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약물과는 별개로 고혈압·당뇨병환자가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는 다양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황(81.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뜸(72.9%), 찜질요법(49.0%), 지압 및 마사지 요법(48.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대체요법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양수[6]와 이여진과 박형숙[22]의 연구에서 한약, 침술, 뜸, 물리치료 등 많은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건강보조식품요법 44.8%, 자연식생요법 28.1%, 효소식이요법 22.9%, 단식 및 절식 요법 22.9% 등 식품 및 식이관련 요법이 적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환관련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인 교육의 시행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해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없는 것이 84.0%로 높았으며, 또한 의료인이 아닌 논의 대상자로는 ‘아무도 상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에 대해 의료인과 상의하지 않는 이유는 ‘병원치료와는 별개이므로’ 41.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상자들이 보완대체요법 사용 시 의료인과 상의여부에 대해 61.7%가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의료인과 적극적인 상의를 하지 않는 이유로 31.7%에서 ‘병원치료는 별개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로 응답한 연구[13]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가 의료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임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하여 초기 환자 사정 시 질병관련 보완대체요법 이용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무분별한 대체요법 이용을 방지[25]하는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하는

대상자에 대한 의료인들의 태도 변화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으로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환자와 의료진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3.11 \pm 0.58$ 점으로 높지 않았으나, 총 15문항 중 인식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보완대체요법은 ‘영터리 치료법이다’가 역환산시  $3.60 \pm 0.78$ 점으로 나타나 보완대체요법이 영터리 치료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현대 의학을 보조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3.02 \pm 0.96$ , ‘일단 적용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3.18 \pm 1.01$ , ‘건강증진을 위해 일반 대중들도 많이 적용하고 있다’  $3.04 \pm 0.86$ 로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의 연구[7]에 따르면 병원에서 행해지는 치료이외의 치료방법 30.9%, 병원에서의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치료방법이 29.8%, 치료는 안 되지만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방법이 28.6%였으며, 또한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증상이 완화될 것 같아서’(66%), ‘병원 치료가 완치가 안 되어서’(16%)로 나타났다.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61.8%), ‘증상완화를 위해서’(26.0%)이용한 것으로 한 연구[21]와 같은 것으로 만성질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완대체요법을 질병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김병욱[26], 문혜원[27]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병원치료 적용 요구도는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 $3.07 \pm 0.91$ )가 이용경험이 없는 대상자( $2.58 \pm 0.91$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3.508, p = .001$ ). 보완대체요법인식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은 재이용 의도, 타인권유 의도 및 관련교육에의 참여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04, r = .516, r = .419, p < .001$ ). 이는 보완대체요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거나, 또한 그 경험이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었을 때 인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타인에게 권유하며 보완대체요법관련 교육에의 참여 요구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

제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은 한의원이거나 일부 병원 에서 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자들 및 더 나아가 국민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보완대체요법 및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 또한 요구되어 진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질병의 양상이 만성화 되어감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완대체요법이 비전문가적 의료체계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고혈압·당뇨병환자들은 보완대체요법 재이용 의도나 타인권유 의도 등의 충성도가 있으나, 의료인과의 상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지에서 행해지는 보완대체요법을 양지로 나오게 하여 보건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대국민 홍보 등이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하여 보완대체요법 효능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대상자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소 건강교실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177명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의 질환관리 및 관련 상담,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56.5%가 CAM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CAM의 이용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6.0%로 나타났다. 또한 CAM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CAM의 병원치료 적용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CAM에 대한 일반적 인식점수는  $3.11 \pm 0.58$ 점으로, 인식점수와 CAM 재이용의도 및 권유의도 및 관련교육 참여의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604$ ,  $r=.516$ ,  $r=.419$  <.001).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의 CAM 이용 현황 및 인식에 대하여 의료인들 및 보건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만성질환자들이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의료인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상의하고, 의료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실행전략 및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책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들이 만성질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진료 및 간호 제공시 사정하여, 대상자들에게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을 제언한다.

##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3.

## REFERENCES

[1] HWM: <http://stat.mw.go.kr/front/index.jsp>.  
 [2] HWM: <http://stat.mw.go.kr/front/index.jsp>.  
 [3]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ealth & welfare.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ress, 2008.  
 [4]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ress, 2010.  
 [5] Cui Y, Shu XO, Gao Y, Wen W, Ruan ZX, Jin F, et al.,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y chinese women with breast cancer.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Vol. 85, pp. 263-270, 2004.  
 [6] Y. S. Jeong, Survey on using alternative medicine in general pop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1997.  
 [7] M. A. Kim, Study on the Actual Use and Awareness of Alternative Therapies Among Hypertensives in Rural Reg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7.  
 [8] M. S. Lee, A Survey of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in Diabetes Melli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1, No. 1, pp. 7-19, 2001.  
 [9] D. C. Um, Y. S. Lee,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Folk Medicine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 No. 1, pp.72-81, 1997.  
 [10] E. H. Jang, K. S. Park, A comparative study of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5, No. 3, pp.402-410, 2003.  
 [11] 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omepage (2013). <<http://nccam.nih.gov>>.  
 [12] E. N. Lee, H. M. Son, Predictive factors for use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ies in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4, No. 2, pp.184-193, 2002.  
 [13] H. Kim, E. Son, M. Kim, E. Lyu, Perception and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diabetic patients in Busan area.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VOL. 16, No. 4, pp. 488-496, 2011.  
 [14] H. S. Oh, A stud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and related factors among patients with



- diabetes mellitus. Journal of Honam University, Vol. 28, No. 2, pp. 279-293, 2007.
- [15] H. M. Son, M. J. Suh, A Surve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in chronic liver.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0, No. 1, pp. 134-147, 1998.
- [16] Sun-Haeng Kim, Analysis of the Use of Sup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and Relevant Factors in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2008.
- [17] H. S. Park, Y. M. Lee, A study on use of alternative therapy in cancer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3, No. 2, pp. 212-227, 2000.
- [18] Gui-Sun Jung,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lung cancer patients receiv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2006.
- [19] Soon-Ak Mok, The research on the reality of cerebral apoplexy patients using complementary therap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2003.
- [20] Yoon-Seoung Jin, A study on the realities of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decision making-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strok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9.
- [21] Hyo-Sook Oh, A stud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and factors related to use among patients with strok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0, No. 1, pp. 37-47, 2008.
- [22] Y. C. Lee, H. S. Park, A study on use of alternative therapy in chronic ill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6, No. 1, pp. 96-113, 1999.
- [23] Soon-Bok Seu,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use of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of the elderly patients in combined of western · oriental treatment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a University, 2007.
- [24] A. J. Park, J. Y. Park, C. H. Han, Utilization pattern of complementary therapy in hypertension, diabetes and chronic arthritis patients visited to local health center.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Vol. 28, No. 2, pp. 107-122, 2003.
- [25] Lazar, J. S., & O'Connor, B. B., Talking with patients about their use of alternative therapies. Primary Care, Vol. 24, No. 4, pp. pp. 699-714, 1997.
- [26] Byung-Wook Kim,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ancer Patients us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5.
- [27] Won-Moon Hye, A study on the use of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in female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a University, 2006.

**이 명 인(Myung In Lee)**



- 2011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박사과정)
- 2013년 3월 ~ 현재 : 군장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응급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hjh44@hanmail.net

**김 윤 이(Yoon Lee Kim)**



- 2011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박사과정)
- 2000년 9월 ~ 현재 : 예수병원 QI팀장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성인간호
- E-Mail : jesus1898@hanmail.net

**서 영 미(Young Mi Seo)**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기초간호
- E-Mail : iamsym@hanmail.net

**이 명 하(Myung Ha Lee)**



- 1998년 2월 : 충남대학교(간호학박사)
- 1985년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조직문화, 리더십, 역량개발
- E-Mail : leemh@jbnu.ac.kr

**정 석 희(Seok Hee Jeong)**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0년 4월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전임강사
- 2010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연구, 간호교육
- E-Mail : awesomeprof@jbnu.ac.kr